

# ‘새신랑’ 김시우, PGA 투어 소니오픈 우승...통산 4승 달성

2년 만에 우승 트로피...한국선수 최경주 이후 15년 만  
지난해 12월 KLPGA 투어 7승 오지현과 결혼 ‘겹경사’

김시우(28)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790만 달러)에서 역전 우승했다.

김시우는 16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에서 벌어진 대회 마지막 날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2개를 묶어 6언더파 64타를 휘둘렀다. 이로써 최종 합계 18언더파 262타를 기록, 헤이든 버클리(미국)를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섰다.

김시우는 이번 우승으로 투어 통산 4승째를 달성했다.

앞서 2016년 8월 윈덤 챔피언십, 2017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021년 1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142만2000달러(약 17억5000만 원)다.

한국 선수가 소니오픈에서 우승한 건 2008년 최경주(53) 이후 15년 만이다. 2021년 대회는 교포 선수 케빈 나(미국)가 우승했다.

또 한국 선수 PGA 투어 최다승 부문에서 최경주(8승)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김시우는 지난해 12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7승을 기록한 오지현(27)과 결혼했다.

새신랑 김시우는 이날 대회장을 찾은 새신부 오지현의 응원을 받았다.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5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김시우는 1~3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맹추격에 나섰다.

이후 버클리가 11번 홀(파3)에서 보기를 범하며 공동 1위에 올랐고, 12번 홀(파4)에서 버디에 성공하며 단독 1위로 치고 나갔다.

쫓고 쫓는 흐름 속에 승부는 18번 홀(파5)에서 갈렸다.

먼저 나선 김시우가 한 타 줄이며 승기를 잡았고, 버클리의 샷은 빛나갔다.

김시우는 “4승을 하게 돼 기쁘다. 3승을 하고 시간이 조금 걸렸다”며 “최경주 프로님이 우승한 대회에서 나도 우승하게 됐다.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최근 새신랑이 된 그는 “(오)지현이도 시즌 중이었는데 결혼 준비까지 다 해줬다. 미국에 있어서 시즌 중이라 한국에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한국선수 가운데 김성현(25)과 안병훈(32)은 최종합계 12언더파 268타로 공동 12위를 기록했다. 또 이경훈(32)은 10언더파 270타를 기록해 공동 28위의 성적으로 대회를 마감했다.



김시우가 15일(현지시간) 미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 오픈 정상에 올라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시우는 최종 합계 18언더파 262타로 정상에 올라 결혼 후 첫 승, PGA 통산 4승을 달성했다.

## ‘소니오픈 우승’ 김시우 “아내 덕에 시합 온 느낌 안나...큰 힘 됐다”

신혼여행 겸 하와이 일찍 도착해  
“아내 같이 걸어줘 긴장도 풀렸다”

새신랑 김시우(28)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790만 달러)에서 우승한 뒤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김시우는 16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에서 최종 합계 18언더파 262타를 기록해 1

위를 차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7승을 거둔 오지현(27)과 결혼했다.

그는 “미국에 있어서 시즌 중이라 들어갈 수 없었다. (오)지현이도 시즌 중이었지만 결혼 준비까지 다 해줬다”며 “나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함께 한국에서 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고맙다”고 말했다.

또 “신혼여행 겸 저번 주에 일찍 하와이에 왔었다”면서 “(오)지현이랑 같이 왔다. 시합

하다가도 코스 밖에서는 시합하러 왔나 싶을 정도로 마음 편했다. 같이 있어서 힘도 많이 되고 좋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합하는 데 스트레스받지 않고, 맛있는 음식 먹으며 다니면서 즐겁게 여행을 같이하고 있었다. 좋은 성격이 따라와서 좋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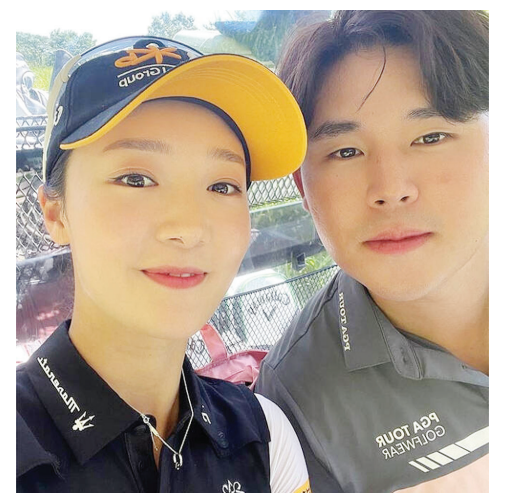
그러면서 “결혼식하고 서로 힘들어서 조금 쉬었다. 하와이 오기 전에 바짝 2~3일 연습했다. (하와이에서)월~수요일 마무리 연습을 잘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고 했다. 또

“긴장되는 상황에서 같이 걸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웃을 수 있었고 긴장도 풀렸다. 쉬운 길이 아닌데 같이 외줘서 고맙다”며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김시우는 “4승을 하게 돼 기쁘다. 1승, 2승까지는 빠르게 찾아왔는데, 3승은 시간이 좀 걸렸다. 4승도 시간이 꽤 걸렸다”면서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 것 같아서 새해에 너무 기쁘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그는 “최경주 프로가 우승한 시합에서 나도 따라 우승하게 된 것 같다. 좋은 징조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김연경과 홍국생명.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 여자프로배구 김연경·배유나 등 올해 FA...‘최하위’ 페퍼 눈독 들이나

여자프로배구에서 맹활약 중인 김연경, 배유나, 김연경 등이 이번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FA) 자격을 취득할 전망이다. 창단 이후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페퍼저축은행 등 구단들은 내년 시즌 성적 향상을 위해 이들을 영입하는 데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여자프로배구는 고졸 출신 선수의 경우 한 팀에서 6년간 뛰면 자유계약 자격을 얻는다. 2번째 이상 자유계약 자격은 3년이 지날 때마다 얻을 수 있다.

이번 시즌 정규 리그 경기를 40% 이상 뛰면 자유계약 자격을 획득하는 선수는 현대건설의 경우 황연주와 황민경, 김연경, 정시영이 있다.

홍국생명은 김연경과 도수빈, 김채연이 자유계약 자격을 얻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대영과 배유나, 박정아, 문정원, 전세안이 자유계약으로 풀린다.

GS칼텍스는 문명화와 한수진, KGC인삼공사는 한송이와 염혜선, 채선아, IBK기업은행은 김수지와 김희진, 페퍼저축은행은 이한비와 지민경이 자유계약으로 풀린다.

오는 4월 챔피언 결정전이 끝나면 공식적으로 자유계약 자격 획득 선수 명단이 발표된다. 발표 이후부터 각 구단은 선수들과 접촉해 영입 의사를 타진할 수 있다.

자유계약 명단이 발표되면 배구계가 페퍼저축은행의 행보를 주목할 전망이다.

2021년 창단한 페퍼는 첫 시즌은 2021~2022시즌에 3승28패에 그치며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첫 시즌 후 자유계약으로 도로

공사 세터 이고은을 데려왔지만 이번 시즌에도 1승19패에 그치며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페퍼는 이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이재영의 입단을 타진할 정도로 전력 보강에 목말라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페퍼는 자유계약으로 풀리는 대형 선수들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페퍼가 최대어 김연경에 주목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홍국생명은 시즌 중 감독 경질로 내홍을 겪고 있다. 김연경은 새 감독이 와도 신뢰할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한 상황이다. 김연경과 홍국생명 간 갈등이 증폭된다면 페퍼가 김연경 영입을 위해 접근할 공간이 더 넓어질 수 있다.

김연경으로서도 풀찌팀 페퍼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릴 경우 선수 생활에 의미 있는 한 획을 그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배구팬들 사이에서는 김연경이 페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김연경 외에도 현대건설 1위 질주의 숨은 공신인 리베로 김연경, 배구 센스가 여전한 배유나 등이 집중적으로 영입 제안을 받을 전망이다.

김희진과 황민경, 박정아, 문정원, 전세안, 염혜선 등도 즉시 전력감이다. 베테랑 황연주와 정대영, 한송이, 김수지 역시 아직 후배들을 이끌 수 있는 자원이다.

다만 대형 자유계약 선수 영입은 기존 소속 선수들의 연봉과 직결된다. 셀러리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대형 선수 영입은 다른 선수 연봉 삭감 내지 방출로 이어질 수 있다.

## 두산 이승엽 감독 “양이지 같은 거물 데려와 놀랐다”

“양이지 영입 가능성 낮게 봤다”  
“스프링캠프 잠재력 선수 주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이승엽 감독이 박수받을 수 있는 시즌을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두산은 16일 오전 잠실구장에서 창단 41주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 최악의 부진을 겪은 두산은 투타 난조로 인해 1982년 창단 후 처음으로 9위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올랐던 두산은 지난해 9위로 미끄러져 충격이 더욱 컸다.

심기일전한 두산은 이승엽 감독을 영입했고, 최고의 포수 양이지를 데려와 올 시즌 명예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이승엽 감독은 기념식에서 선수들에게 당당해지라고 당부했다.

그는 “선수들이 7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올랐던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했으면 한다. 144경기 중 한 경기에서 부진하더라도 고개 숙이지 말고 앞을 보면서 당당하게 하면 두 번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가 만족할만한 성적, 팬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이승엽 감독과의 일문일답

**-스프링캠프 명단을 짤 때 어떤 고민을 했는지.**

“처음 팀을 맡아보니까 지난해 마무리 캠프에서 많은 선수들을 보고 싶었다. 많이 보고 직접 판단을 하고 싶었다. 마무리 캠프와 스프링캠프는 다르다. 스프링캠프는 실제 시즌에 땀 멤버를 봐야 한다. 모든 선수들을 스프링캠프에 데려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다. 2군 캠프에서 준비하는 선수들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 주면 공백이 생길 시 1군에 올 수 있다. 선수들이 동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허경민을 주장으로 선임한 배경은.**

“지난해 주장 김재환이 작년에 부진해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다. 김재환은 팀의 주포이기 때문에 그 선수가 안 좋아지면 팀 분

위가 가라앉을 수 있다. 그래서 김재환의 부담감을 내려주고 싶었다. 허경민은 조용한 선수가 아니고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이니 중간 입장에서 선배, 후배를 관리할 수 있는 선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WBC에 두산 선수가 3명이 뽑혔는데.**

“축하한다. 걱정스런 부분은 박빈, 정철원 등 투수가 2명이 뽑혔다는 것이다. 몸 관리를 해야 하는 시기에 피치를 빨리 올려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다. 포수 양이지가 같이 가서 안심은 된다. 한편으로는 조금 더 많이 뽑혔으면 하는 실망감도 있다. 우리나라 대표로 대회에 나가니까 두산 걱정은 잠시 미루고, 팔이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웃으면서 두산에 복귀했으면 한다.”

**-양이지가 다시 왔을 때 매우 좋아했는데.**

“양이지가 있을 때 두산은 예상하기 어려운 경기를 했다. 예상과 달리 다른 공략법이 였다. 양이지는 상대팀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다. 아무 표정이 없어서, 저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할까 할 정도로 판단이 어려웠다. 이제 경험이 더 붙어서 여우 같이 상대방을 요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양이지 같은 거물을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 가우렘했다. 양이지를 원하는 팀이 있어서 두산이 약간 밀린다고 생각했다. 양이지가 못 오더라도 현재 선수들만으로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오게 돼서 기뻐한 것 같다.”

**-양이지 백업 멤버는.**

“양이지가 1년을 풀로 땀 수 없다. 제2의, 제3의 포수가 나와야 한다. 주전들이 부진, 부상을 당했을 때 데워줄 수 있는 선수가 많이 나와야 한다. 장승현, 안승환, 박유연 등이 있다. 이 선수들이 잘해야 한다. 이번 캠프에서 실력 향상에 따라 시즌에 기여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캠프 일정 구상은 마쳤나.**

“3, 4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짜고 있다. 호주는 낮이 굉장히 덥다. 코칭스태프와



상의해서 아침과 이른 아침에 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후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 가을처럼 많은 훈련 하기는 조금 힘들다. 시즌에 맞춰서 훈련을 해야 하고, 경기에 나갈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인 중에 캠프에 가는 선수는.**

“윤준호가 캠프에 간다. 투수 인원이 많아서, 포수가 많이 필요해서 윤준호를 데려가기로 했다. ‘최강야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WBC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책임감을 가져라. 어린 팬들, 야구하는 친구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어떤 성적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부담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다. 3월 초에는 몸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태극마크의 소중함을 느끼고 귀국할 때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국제대회에서 잘할 수 있는 팀은.**

“내 경우에는 항상 초반에 부진하다가 마지막에 잘했다.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이번 WBC에서는 처음부터 치고 나가는 선수들이 나왔으면 한다. 잘할 것이다.”